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

장 숙 경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생

김 민 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지역 대학생 592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성향적 낙관성, 대인관계문제, 단절 및 거절도식을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 결과들과 이론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2개의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모형 1은 아동기 외상 및 성향적 낙관성이 단절 및 거절도식을 통해 대인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고, 모형 2는 아동기 외상은 단절 및 거절도식을 통해 대인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향적 낙관성은 대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단절 및 거절도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형이다. 그 결과, 첫째, 아동기 외상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향적 낙관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외상, 성향적 낙관성, 단절 및 거절 도식, 대인관계 문제, 대학생

* 본 연구는 장숙경(2019)의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및 기질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821호
Tel : 031-219-1791, E-mail : kimmj@ajou.ac.kr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생을 마칠 때까지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인간은 대인관계 속에서 관심, 지지, 사랑 등 긍정적 경험을 하며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 형성은 인간의 건강한 성격을 발달시키며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반면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 경우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건강한 성격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이민선, 채규만, 2012).

Erickson(1994)에 따르면, 초기 성인기에 들어선 대학생 시기의 발달 과업은 친밀감 형성을 통하여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인간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어느 시기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대학입시에 집중하던 청소년기에서 벗어나면서 전공학과, 동아리 등의 동료나 선배배같이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김현진, 한종철, 2004) 또한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가 가장 활발한 만큼 많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고 청소년기와 다르게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권석만, 2018). 이렇듯 대인관계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서울 소재의 대학교 상담 센터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문제가 대인관계 문제(29.87%)라고 답했으며, 상담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문제 또한 대인관계 문제(21.64%)라고 답했다(연세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소, 2012). 대학생 시기에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성인기 이후 사회 적응에 있

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김순혜, 김정원, 2004),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에서 814명의 성인기 남녀의 삶을 7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서, 인간의 행복 수준은 가족, 동료, 친구 등 공동체와 얼마나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Vaillant, 2003). 대인관계 문제는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반응을 왜곡해서 인식하여 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한다(최임정, 심혜숙, 2010). 이로 인해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우울, 불안, 소외감, 분노 등 과도한 불쾌한 감정은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유발한다(권석만,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문제로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며(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 & Villaseñor, 1988) 인생 전체의 행복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심리적 장애를 발생시키는 대인관계 문제에 초점을 둔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이태영, 노영천, 2014). 그 중 환경적 요인에서는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가해지는 학대와 같은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였다(고나래, 2008; 배미향, 조영아, 2014; 이유경, 2006; 조은정, 2004; 이태영, 심혜숙, 2011; 한수경, 정남운, 2014). 아동기에 주 양육자로부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초기 성인기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많았으며(박은미, 1999), 아동기에 외상 경험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학생 시기에 대인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시현, 2014). 즉, 아동기 만성적인 외상 경험은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Luxenberg, Spinazzola, & Kolk,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 아동기 외상 경험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은 만 18세 미만의 시기에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 신체적·정서적 방임, 성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였다(Morgan & Fisher, 2007). 이 중에서 성적 학대는 다른 학대 유형의 심리 사회적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외상 관련 연구에서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별하여(김은정, 김진숙, 2010; 최은영, 안현의, 2011) 연구하는 경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성 학대는 제외하였다.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우울 취약성(박은혜, 정남운, 2014), 성격장애 성향(진하영, 권은정, 권지은, 황순택, 2010), 낙관성(이태영, 노영천, 201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심리적 건강 회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알려진 낙관성에 주목하였으며(Bostock, Sheikh, & Barton, 2009; 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실제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낙관성과 대인관계 문제가 관련되어 있음이 지지된 바 있다(배미향, 조영아, 2014; 유현하, 2012; Santos, Miguel & Teresa, 2012). 성향적 낙관성은 안정적인 개인적 기질로서, 사건이나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고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말한다(Scheier & Carver, 1985; Peterson, 2000). 일반적으로 낙관

적인 사람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김숙영, 2010). 성향적 낙관성은 대인관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낙관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 문제에서 타협적이고 협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 문제를 회피적, 공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노현숙, 2006; 김해숙, 2012). 실제로 성향적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진효정, 2013; Assad, Donnellan, & Conger, 2007; Srivastava, McGonagal, Richards, Butler, & Gross, 2006; Vollmann, Antoniw, Hartung, & Renner, 2011), 사회적 지지를 더 증가시킴으로써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영, 노영천, 2014). 따라서 성향적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의미를 추측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추측한 내용이 합당하고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런 점이 대인관계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권석만, 2018). Beck(2000)은 대인관계 문제가 대인 상황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대인관계 신념이 역기능적일수록 대학 생활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Hamamci & Esen-Coban, 2010). 즉, 아동기 외상 경험과 낮은 수준의 성향적 낙관성이 반드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요인이 매개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인관계 문제를 살펴 본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 내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으로서 단일 변인의 역할을 검증하거나 아동기 외상 또는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대인관계 문제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매개변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지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외상과 성향적 낙관성 변인을 동시에 포함시키고 아동기 외상 및 낙관성과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지적 요인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인 초기 부적응 도식(이태영, 심혜숙, 2011; 이현정, 장희순, 2014; 차미영, 2010; 최나운, 이영호, 2018; Wright, Crawford, & Del Castillo, 2009)은 자기와 환경을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기 위한 참조의 틀로서 기능하며, 초기 부적응 도식의 발달에 있어서 초기 아동기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특히 초기 부적응 도식은 전통적인 인지행동 치료와 달리 심리적 문제의 발달 및 변화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초기 아동기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인

요인인 기질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이라는 매개변인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초기 부적응도식은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광범위하고 만연된 자기-패배적 사고와 감정의 패턴으로서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인 도식(유성진, 권석만, 2008)으로 정의하였으며,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거나 외상 또는 고통을 경험하는 등 유해한 아동기 경험과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초기 부적응 도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김지연, 신민섭, 이영호, 2011; Young et al., 2003). 초기 부적응 도식은 성인기 이전에 발달하여 생애 전반에 걸쳐 정교화되며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특성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도 이를 편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한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남윤정, 김은향 2018; 백승아, 구분용, 2018).

Young 등(2003)은 18개의 초기부적응도식을 아동기에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중심으로 5개의 도식 영역을 분류하였는데, 이는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혜, 손상된 한계, 타인-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 영역이다. 그중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대부분은 아동기 외상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다섯 가지 하위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기/불안정, 불식/학대, 정서적 결핍, 결합/수치심, 사회적 고립이다(이현정, 장희순, 2014; 유미경, 하정희, 2019). 특히 단절 및 거절도식은 다른 심리도식의 비해 정신건강과 더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ordahl, Holthe, & Haugum, 2005), 5개의

심리도식 영역 중 단절 및 거절 도식 영역이 가장 심각한 손상의 정도를 보였다(Gibb et al., 2001; Harris & Curtin., 2002). 또한 단절 및 거절 도식 영역만을 매개변인으로 채택한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대학생활 적응(John, Mark, & Tracy, 2008), 대인관계에서의 갈등(Messman-moore & Coates, 2007),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관계를 반복(구성희, 채규만, 2013; 안하얀, 서영석, 2011)하는 등 대인관계 문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단절 및 거절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채택하고 이를 파악함으로써 대인관계 문제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심리도식 영역 중 대인관계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단절 및 거절 도식 영역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대인관계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단절 및 거절 도식 영역(권진희, 김혜란, 2017; 안하얀, 서영석, 2011; John et al., 2008; Messman-moore & Coates, 2007, Wei, Vogel, Ku, & Zakalik, 2005)은 아동기에 반복된 외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다(이현정, 장희순, 2014; 최나윤, 이영호, 2018).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거나 학대와 같은 외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학대적이고 차갑고 거부적일 거라고 믿는다. 이로 인해 이들의 대인관계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고립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유미영, 하정희, 2019; 유아진, 서영석, 2017; Young, 1990, 1994). 실제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아동기 외상 경험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 장희순, 2014; 차미영, 2010; John et

al.,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아동기 외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매개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동기 외상 경험과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이 상호작용하여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Crawford & Wright, 2007; Messman-Moore & Coates, 2007).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의 상호작용은 심리도식 발달에 매우 중요한데(김지연 등, 2011; Young et al., 2003), 이는 환경적 요인과 아동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기질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심리도식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곽영희, 정현희, 2011; 황정미, 김민정, 2018; Young, 1990, 1994). 단절 및 거절도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은 공격적인-수동적인 기질, 침착한-불안한 기질, 세심한-산만한 기질, 낙관적-비관적 기질 등이 있다(Young et al., 2003). 그중에서도 낙관적-비관적 기질은 사건이나 경험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기대하는 방식을 뜻한다. 실제로 낙관적인 사람들은 외상을 경험할 때 부정적인 사고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Scheier & Carver, 1985), 아동기에 외상 경험이 있어도 낙관적인 아동들은 비관적인 아동들 보다 단절 및 거절도식을 덜 형성한다고 하였다(Young et al., 2003). 즉, 아동기 외상을 경험하더라도 성향적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동기 외상 경험을 받아들임으로써 긍정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덜 형성되는 반면 비관적 기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동기 외상을 경험하지 않아도 평범한 경험을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며,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단절 및 거절 도식이 형성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천적인 타고난 방식으로 경험을 이해하고 결과를 기대함으로써 단절 및 거절 도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향적 낙관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 초기부적응도식이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제안되지만(Young, 1990, 1994) 다양한 변인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초기부적응 도식이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인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곽영희, 정현희, 2011; 황정미, 김민정, 2018)는 존재하지만 많지 않고, 이론적으로 고찰했을 때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향적 낙관성이 상호작용하여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 된다는 가정(Young, 1990, 1994)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5개의 심리도식 영역 중 대인관계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채택하여 아동기 외상과 성향적 낙관성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아동기 외상 및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거쳐 대인관계 문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Young, 1990, 1994, Young et al., 2003)를 토대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형성에 유의미한 예측 요인인 아동기 외상과 성향적 낙관성, 그리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향적 낙관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통해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검증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제행동과 초기부적응도식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주로 경험 변인만을 고려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도식에 대한 기질의 영향을 고려하여 Young의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하여 단절 및 거절 도식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할 근거가 될 것이며, 초기부적응도식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기질도 고려할 필요성을 제안할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은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낙관성 기질은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대학생의 낙관성 기질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과 대인관계 문

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나라 아동 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기 외상의 경험을 18세 미만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고 초기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특징, 위험성과 이점, 비밀보장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을 때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실시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명의 자료를 제외한 592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남학생은 273명(46.1%), 여학생은 319명(53.9%)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198명(33.4%), 2학년은 176명(29.7%), 3학년은 119명(20.1%), 4학년은 99명(16.7%)이었다.

측정 도구

아동기 외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개발한 아동기외상 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김은정과 김진숙(2010)이 타당화한 아동기 외상질문지 단축형(CTQ-SF)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18세 이전에 부모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방임, 정서적 학대·방임 경험을 나타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4점 Likert 형식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5문항,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5문항, 정서적 방임에 해당하는 5문항, 신체적 방임에 해당하는 5문항,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기 외상 경험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대표적 문항의 예로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이며, 신체적 학대의 경우,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가 있다. 그리고 정서적 방임의 경우,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이며, 신체적 방임의 경우,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학대 5문항을 제외 하였는데, 이는 성적 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의 심리사회적 후유증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외상 관련 연구에서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별하여(김은정, 김진숙, 2010; 최은영, 안현의, 2011) 연구하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성적 학대를 제외한 김은정, 김진숙(2010)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가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성향적 낙관성

성향적 낙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노영천, 유순화(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인용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며, 안정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성향적 낙관성 척도와 특정 사건의 원인들에 대한 습관적 해석 방식을 의미하는 해석 양식적 낙관성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는 성향적 낙관성을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미래가 희망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리적 경향성’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성향적 낙관성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 5점 Likert 형식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해당하는 4문항,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에 해당하는 7문항, 관계에

대한 낙관성 7문항, 성취에 대한 낙관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낙관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는 ‘나의 미래는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좀처럼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는 편이다.’, ‘힘든 일이라도 나와 함께라면 기꺼이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업무상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가 있다. 노영천, 유순화(201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계수가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3로 나타났다.

단절 및 거절 도식

초기부적응도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Young의 단축형 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YSQ-SF; Young, 1994)를 Baranoff, Tian, 권석만과 조성호(2006)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5문항 6점 Likert 형식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단절 및 거절 도식 영역, 손상된 자율성 도식 영역, 손상된 한계 도식 영역, 과잉경계 도식 영역, 타인 중심 도식 영역의 총 5개의 도식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초기부적응도식의 특징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영역(유기/불안정, 불신/학대, 결합/수치심, 정서적 결핍, 사회적 고립)에 해당하는 25문항을 사용하여 단절 및 거절 도식 영역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대표적으로 정서적 결핍의 경우, ‘나를 보살펴주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내 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다.’이며, 유기/불안정의 경우,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이

다. 불신/학대의 경우, ‘사람들이 날 이용할 거라고 느낀다.’, 사회적 고립의 경우,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잘 어울리지 못하다’이며, 결합/수치심의 경우, ‘내 결점을 알고 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시연과 서영석(2008)의 연구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에 해당하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가 .93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홍상황 등(2002)이 제작한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s: KIIP-SC)을 사용하였다. 총 40 문항 5점 Likert 형식(0점: 전혀 아니다, 4점: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친애요인으로 냉담에 대한 5문항, 사회적 억제에 대한 5문항, 자기희생에 대한 5문항, 과관여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제-지배요인으로 통제지배에 대한 5문항, 자기중심성에 대한 5문항, 비주장성에 대한 5문항, 과순응성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대표적으로 친애의 경우,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나는 존경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이며, 통제-지배의 경우,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진심으로 걱정해줄기가 어렵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

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계수가 .89이며,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SPSS 24를 사용하여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가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으며, West, Finch, Curran(1995)의 제안에 따라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7 이하일 때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를 산출하여 10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김효창, 2013).

잠재변인인 성향적 낙관성, 단절 및 거절도식, 대인관계 문제는 모두 하위요인이 존재하는 요인들로, 각 변인의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아동기 외상의 경우, 정서학대, 신체학대, 정서방임, 신체방임, 성적학대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적학대를 다른 학대와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선행연구(김은정, 김진숙, 2010; 차미영, 2010; 최은영, 안현의, 2011)의 제안을 근거로 성적학대를 측정하는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동기 외상의 측정변인을 생성하기 위하여 남은 문항으로 3개의 꾸러미를 생성(parceling)하였다. 각 꾸러미가 동일한 수준에서 잠재변인을 반영할 때 꾸러미의 효과가 극대화되는데(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선행연구(박준호, 서영석, 2009)에서는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대해 갖는 부하량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을 제

안하였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절차를 따랐다. 우선 아동기 외상에 대하여 요인 수를 하나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문항들을 요인부하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요인부하량이 가장 많은 문항과 가장 적은 문항을 하나로 묶어 3개의 꾸러미 각각에 순차적으로 할당하였다.

측정모형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AMOS 20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Hu와 Bentler(1999)의 제안대로 Tucker Lewis Index(TLI: .90이상이면 적합), Comparative Fit Index(CFI: .90 이상이면 적합),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10이하이면 적합), Standardized RMR(SRMR:08이하면 적합)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여 판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대안모형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졌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이 동일한 수의 잠재변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변인간 관계를 바꾼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인 경우, 두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배병렬, 2014). 또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모형에 대해 갖는 확증편향을 줄이기에 유용한 방법이다(Martens, 2005). 본 연구에서는 성향적 낙관성 이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직접경로 역시 유의미할 것으로 가정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김은정, 2011; 배미향, 조영아, 2014; 이태영, 노영천, 2014) 한 것에 근거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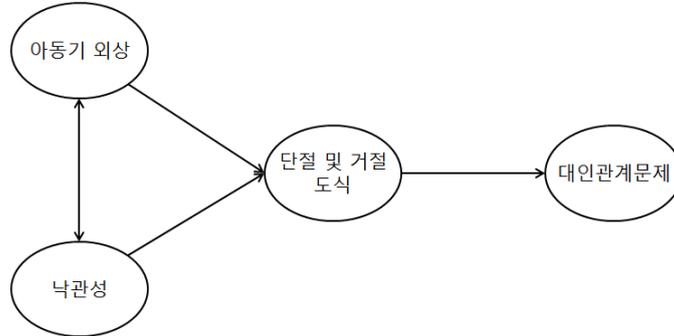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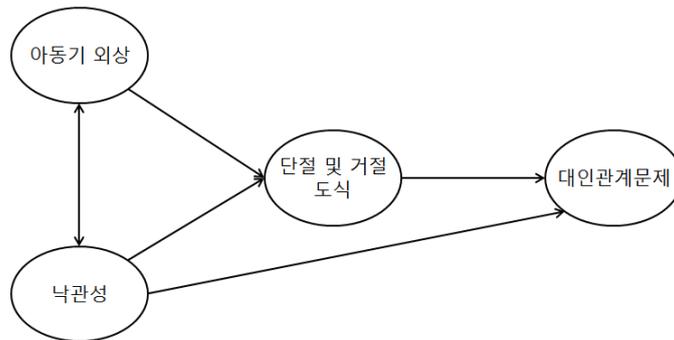


그림 2. 대안모형

도 지수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설정하였고,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하여 최종 채택된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

인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아동기 외상은 단절 및 거절 도식($r=.32\sim.50, p<.001$), 대인관계 문제($r=.27\sim.34, p<.001$)와 정적상관이 있었고, 성향적 낙관성은 단절 및 거절 도식($r=-.60\sim-.23, p<.001$), 대인관계 문제($r=-.54\sim-.27, p<.001$)와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아동기 외상이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많이 갖고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하며,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적게 갖고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외상과 성향적 낙관성은 부적상관($r=-.34\sim-.25, p<.001$)이 있어 아동기 외상이 높을수록 성향적 낙관성은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1-1	1-2	1-3	2	2-1	2-2	2-3	2-4	3	3-1	3-2	3-3	3-4	3-5	4	4-1	4-2	
1. 아동기 외상	-																		
1-1. 아동기 외상 꾸러미 1	.92	-																	
1-2. 아동기 외상 꾸러미 2	.91	.72	-																
1-3. 아동기 외상 꾸러미 3	.92	.79	.78	-															
2. 성향적 낙관성	-.34	-.30	-.30	-.33	-														
2-1.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26	-.24	-.23	-.25	.82	-													
2-2.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	-.32	-.28	-.27	-.33	.90	.66	-												
2-3. 관계에 대한 낙관성	-.32	-.27	-.29	-.31	.90	.69	.74	-											
2-4. 성취에 대한 낙관성	-.29	-.26	-.25	-.26	.91	.70	.74	.75	-										
3. 단절 및 거절 도식	.50	.45	.48	.44	-.55	-.40	-.48	-.60	-.45	-									
3-1. 정서적결핍	.44	.39	.44	.38	-.44	-.33	-.37	-.49	-.34	.79	-								
3-2. 유기불안정	.40	.36	.38	.36	-.43	-.31	-.41	-.42	-.36	.82	.53	-							
3-3. 불신함대	.37	.32	.34	.33	-.36	-.23	-.32	-.41	-.28	.79	.50	.57	-						
3-4. 사회적고립	.42	.37	.40	.37	-.52	-.37	-.42	-.60	-.43	.87	.64	.60	.62	-					
3-5. 결함수치심	.46	.41	.44	.39	-.54	-.43	-.46	-.57	-.45	.86	.64	.62	.57	.76	-				
4. 대인관계 문제	.33	.30	.30	.32	-.52	-.31	-.48	-.54	-.45	.68	.43	.57	.56	.65	.57	-			
4-1. 친애	.31	.27	.27	.30	-.48	-.27	-.45	-.50	-.40	.67	.42	.58	.55	.65	.56	.97	-		
4-2. 통제지배	.34	.30	.30	.32	-.53	-.33	-.49	-.54	-.46	.65	.43	.53	.53	.61	.56	.97	.89	-	
M	28.39	10.08	9.79	8.63	91.67	15.15	24.47	26.18	25.87	46.81	8.50	10.72	10.69	8.65	8.26	51.23	28.03	23.20	
SD	7.65	3.00	2.82	2.63	15.47	2.84	4.94	4.77	4.83	19.38	4.26	5.43	4.87	4.38	4.51	25.34	13.20	12.86	
왜도	1.33	1.32	1.44	1.25	-0.16	-0.45	-0.17	-0.24	-0.22	1.22	1.48	0.94	0.87	1.45	1.93	0.02	0.02	0.09	
첨도	2.13	2.21	2.76	2.23	0.00	0.12	-0.31	0.02	-0.19	1.57	2.15	0.30	0.45	1.87	4.06	-0.70	-0.53	-0.70	

주. 모든 상관계수의 *** $p < .001$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 문제는 정적상관($r=-.42\sim-.68$, $p<.001$)이 있어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모든 잠재변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동기 외상, 성향적 낙관성, 단절 및 거절도식, 대인관계 문제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잠재변인의 VIF 값은 1.35-1.69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VIF 값이 10 이하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제안(김효창, 2013)을 근거로 변인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얼마나 잘 구인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X^2=287.988(df=71, p=.000)$, TLI=.954, CFI=.964, RMSEA=.072(90% 신뢰구간=.063-.081), SRMR=.039. 또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아동기 외상 .85-.91, 성향적 낙관성 .66-.88, 단절 및 거절 도식 .70-.88, 대인관계 문제 .94로 분포하였으며,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4개의 측정변인으로 4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X^2=306.275(df=73, p=.000)$, TLI=.952, CFI=.961, SRMR=.044, RMSEA=.074(90% 신뢰구간=.065-.08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직접경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법으로 경쟁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경쟁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X^2=290.359(df=72, p=.000)$, TLI=.954, CFI=.964, SRMR=.039, RMSEA=.072(90% 신뢰구간=.063-.080). 경쟁모형의 경로계수 역시 모든 직접경로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이 모두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모형 내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X^2 차이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대안모형은 연구모형에 비해 X^2 값이 15.916 작고 두 모형의 자유도는 1 차이가 있다. 자유도가 1일 때 X^2 차이의 임계값은 3.84(유의수준 .05)인데 두 모형의 차이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은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김계수, 2007). 대안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더 좋은

표 2. 연구모형,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SRMR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306.275	73	.952	.961	.044	.074
대안모형	290.359	72	.954	.964	.039	.072

적합도 지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안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하여 최종 채택된 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최종모형에서 아동기 외상이 단절 및 거절 도식으로 가는 직접효과 경로계수는 .34(C.R.=8.34, $p<.001$), 성향적 낙관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으로 가는 직접효과 경로계수는 -.51(C.R.=-11.57, $p<.001$)로 나타났다. 이로써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은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영향을 미치고(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향적 낙관성도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아동기 외상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향적 낙관성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단절 및 거절 도식에서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직접효과 경로계수는 .61(C.R.=12.05, $p<.001$)로 나타나,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향적 낙관성에서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직접효과 경로계수는 -.19(C.R.=-4.15, $p<.001$)로 나타나,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많이 가질 것이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많이 가질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하며,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적게 가질 것이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적게 가질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경험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Kline(1998)은 경로계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30은 중간 효과, .30이상은 큰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동기외상과 성향적 낙관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으로 가는 경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경로는 큰 효과를 보이고,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경로는 중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3, 그림 3과 같다.

최종모형에서 아동기외상은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정적 영향($\beta=.42$, $p<.001$)을 미치고 성향적 낙관성은 단절 및 거절 도식에 부적 영향($\beta=-.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아동기외상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향적 낙관성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 영향($\beta=.62$, $p<.001$)을 미

표 3.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모수치	비표준화계수	S.E.	C.R.	표준화계수
아동기 외상 → 단절 및 거절 도식	.41	.05	8.34***	.34
성향적 낙관성 → 단절 및 거절 도식	-.39	.03	-11.57***	-.51
단절 및 거절 도식 → 대인관계 문제	2.47	.21	12.05***	.61
성향적 낙관성 → 대인관계 문제	-.56	.14	-4.15***	-.19

주. N=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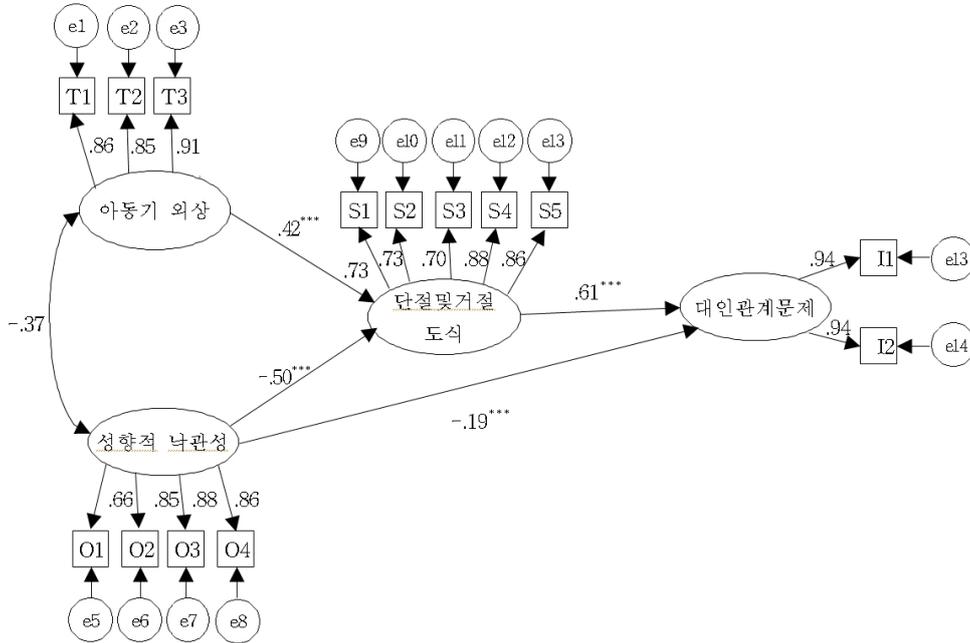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

주. N=592. *** $p < .001$. T1=아동기외상 꾸러미, T2=아동기 외상 꾸러미, T3=아동기외상 꾸러미, O1=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O2=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 O3=관계에 대한 낙관성, O3=성취에 대한 낙관성, S1=정서적 결핍, S2=유기/불안정, S3=불신/학대, S4=사회적 고립, S5=결함/수치심, I1=친애, I2=통제/지배.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쳐,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성향적 낙관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부적 영향($\beta = -.18, p < .001$)을 미쳐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이 많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많이 가질 것이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많이 가질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많이 경험하며,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적게 가질 것이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적게 가질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적게 경험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Kline(1998)은 경로계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30은

중간 효과, .30이상은 큰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아동기외상과 성향적 낙관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으로 가는 경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경로는 큰 효과를 보이고,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경로는 중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검증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가상의 무선표본을 많이 만들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간접효과의 유

표 4.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검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95% 신뢰구간)	총 효과
아동기 외상 → 단절 및 거절 도식	.34**		.34**
성향적 낙관성 → 단절 및 거절 도식	-.51**		-.51**
단절 및 거절 도식 → 대인관계 문제	.62**		.62**
아동기 외상 → 대인관계 문제		.21* (.15, .27)	.21*
성향적 낙관성 → 대인관계 문제	-.19**	-.32** (-.38, -.26)	-.50**

주. N=592. * $p < .05$, ** $p < .01$.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의성을 검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표준오차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효과적이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N=592)로부터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를 거쳐 도출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alpha =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검증 결과, 아동기 외상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거쳐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적 낙관성에서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경로 역시 직접경로뿐만 아니라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거쳐서 가는 간접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 경험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최종모형의 경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절 및 거절 도식에 대하여 아동기 외상은 정적 영향이 유의하였으며, 성향적 낙관성은 부적 영향이 유의 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부적응 도식이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는 이론(Young et al., 2003)을 근거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역시 외상 경험과 기질이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한다(Crawford & Wright, 2007; Messman-Moore & Coates, 2007)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연구(황정미, 김민정, 2018)에서도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초기부적응도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지속성 기질과 부모양육행동이 손상된 한계 도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 도식에 대한 기질과 환경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단절 및 거절 도식에 대한 아동기 외상과 성향적 낙관성의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많고 성향적 낙관성이 낮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많이 가짐을 시사한다.

둘째,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 사람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이 역기능적일 때 더 많은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 2000; Hamamci & Esen-Coban, 2010). 경험적 연구는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 중에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대인관계 문제와 특히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구성희, 채규만, 2013; 안하얀, 서영석, 2011; 최나운, 이영호, 2018).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높은 단절 및 거절 도식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를 높임을 시사한다.

셋째,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아동기 외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영역 중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아동기 외상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Gibb et al., 2001; Harris & Curtin, 2002), 아동기 외상경험이 많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 문제가 증가(이현정, 장희순, 2014)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차미영, 2010)에서는 아동기 외상 경험이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위협에 대한 취약성 도식을 형성시켜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여, 아동기 외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 대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를 시사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에 외상 경험을 많이 할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많이 갖게 되어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이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직접경로를 가정하지 않은 모형을

설정하였고, 검증결과 해당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선행연구는 아동기 외상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지 않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최나운, 이영호, 2018)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기 외상은 우울에 대해서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로 영향을 미친다(김은정, 김진숙, 2010)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이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Messman-Moore & Coates, 2007; Crawford & Wright, 2007)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기 외상 변인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을 성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방임, 정서적 학대·방임만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성적 학대로 인한 심리부적응 양상이 다른 학대 유형과 구별되어 성적 학대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해야 한다는 제안(김은정, 김진숙, 2010; 권해수, 2003; 한지숙, 2004;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Lumley & Harkness, 2007; Spertus, Yehuda, Wong, Halligan, & Seremetis, 2003)에 근거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방임, 정서적 학대·방임만을 변인으로 포함한 반면, 선행연구들(이현정, 장희순, 2014; Messman-Moore & Coates, 2007; Crawford & Wright, 2007)은 정서적 학대·방임만을 변인으로 포함했거나 신체적 학대·방임, 정서적 학대·방임, 성적 학대 모두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결과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김은정, 김진숙 2010; 최나운, 이영호, 2018)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성적 학대를 제외한 아동기 외상과 단절 및 거절 도식, 심

리적 부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기 외상,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의 하위변인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대학생의 성향적 낙관성,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성향적 낙관성과 대인관계 문제를 매개하고 성향적 낙관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변인으로 하고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질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성향적 낙관성, 단절 및 거절 도식,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낙관적인 사람은 타인의 예상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적응적인 대인관계도식을 형성하게 되고(조하나, 2003) 성향적 낙관성은 긍정적 평가를 거쳐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백혜영, 신희천, 2008)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은 개인의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 맥락에 대한 인지적 처리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는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단절 및 거절 도식이 낮아져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감소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성향적 낙관성,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 역시 유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성향적 낙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낮고(배미향, 조영아, 2014; 김은정, 2011), 대인관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김해숙, 2012),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는다(이태영, 노영천, 2014)고 보고하였다. 성향적 낙관성은 대표적인 긍정적 심리적 자원(Bostock et al., 2009; Chang et al., 1997)으로,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고 적응에 도움을 주는 변인이다(배미향, 조영아, 2014; 유현하, 2012; Santos et al., 201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성향적 낙관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매개로 대인관계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변인이기도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상담 실체와 이론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단절 및 거절 도식에 개입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단절 및 거절 도식은 아동기 외상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는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험인 아동기 외상과 시간이 흘러도 매우 안정적인 타고난 기질(Kagan, Reznick, & Snidman, 1988)은 상담자가 개입하기 어려운 반면, 초기부적응도식은 개입과 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대학생 내담자에 대해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확인하고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들은 초기부적응도식에 개입하는 초기부적응 도식 측면과 건강한 측면 사이에서 대화하기와 초기부적응 도식의 촉발 자극에 대한 건강한 반응 목록인 심리도식 대처카드(Yong, Wattenmaker, & Wattenmaker, 1996), 초기부적응 도식이 촉발 될 때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도식 일지(Young, 1993)와 같은 다양한 인지적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단절 및 거절 도식에 개입하는 것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갖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아동기 외상 경험과 낮은 성향적 낙관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향적 낙관성이 단절 및 거절 도식의 유의미한 선행변인임을 검증하였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향적 낙관성 정도를 탐색함으로써 내담자가 단절 및 거절 도식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더 깊이 있게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담자는 단절 및 거절 도식에 선행하는 자신의 경험과 기질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자기이해가 확장되고 자기를 수용하는 계기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 직접효과를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으로서 성향적 낙관성의 역할을 강조한다. 성향적 낙관성은 대표적인 긍정적 심리적 자원(Bostock et al., 2009; Chang et al., 1997)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생득적으로 타고 나는 성향이기도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Seligman, 1991),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상상하기(Meevissen, Peters, & Albers, 2011)와 같은 방법으로 후천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변인이기도 하다.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직접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 상담현장 및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성향적 낙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Young의 심

리도식이론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하는데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Young 등(2003)은 초기부적응도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부적응도식의 형성에 아동기 및 청소년기 환경과 개인의 타고난 기질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초기부적응도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아동기 외상 경험, 아동기 시절의 보편적인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거나 과잉 충족된 부모양육태도 등이 있으며, 개인의 독특하고 특징적인 기질 혹은 성격 역시 초기부적응도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Kagan et al., 1988). 하지만 최근 초기부적응도식을 매개변인으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설명하려는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구성희, 채규만, 2013; 안하얀, 서영석, 2011; 김홍석, 노영천, 2013)은 단일 독립변인에 대한 검증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더하여 본 연구는 개인의 기질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Young의 심리도식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한 연구이며, 심리도식이론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하는데 적용이 가능함을 제안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표집을 통해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기 외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일반 대학생 을 대상으로 19세 이전의 외상 경험을 회상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아동 학대 기록 및 주변 관련자 보고를 통한 교차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미화 경향성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 경험, 단절 및 거절도식과 대인관계 문제 등의 부정적 지표에 대해 정보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측정도구를 포함하여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고 반응 왜곡을 감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향적 낙관성, 단절 및 거절도식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대인관계 도식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높은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도식은 유사한 행동반응일 뿐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성향적 낙관성, 단절 및 거절 도식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 요인인 성향적 낙관성과 환경적 요인인 아동기 외상 경험 조합으로만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조합으로 단절 및 거절 도식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간명성을 위하여,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아동기 외상이 대인관계 문제로 가는 직접경로를 가정하지 않은 모형을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아동기 외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직접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도 존재하므로,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아동기 외상에 대한 측정방법을 정교화하여 두 변인간 직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추후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 및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시간적 순서에 인과관계를 가정하였으며,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나 실험 연구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밝힌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향적 낙관성이 본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측정의 오차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도식이 형성에 선행한 실제 성향적 낙관성 정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나래 (2008). 아동, 청소년기 복합외상경험이 정서조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영희, 정현희 (2011). 청소년의 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6), 45-64.
- 구성희, 채규만 (2013). 초기부적응도식이 성인 애착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2), 255-268.
- 권석만 (2018).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진희, 김혜란 (2017). 단절 및 거절도식과 대인관계 문제에서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적응적 정서조절 방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시

- 설환경, 15(1), 13-24.
- 권해수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숙영 (2010). 초등학생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혜, 김정원 (2004). 대학생의 심리적 분리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사회적 적응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2), 83-97.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 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5.
- 김은정 (2011). 초등학생의 낙관성과 학생이 지각한 교사와의 친밀도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지연, 신민섭, 이영호 (2011). 대학생의 외로움 및 우울의 인지적 특성: 초기부적응도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7, 39-60.
- 김현진, 한종철 (2004).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77-294.
- 김해숙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문제해결양식과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석, 노영천 (2013). 아동의 학대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1-20.
- 김효창 (2013). 혼자서 완성하는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남윤정, 김은향 (2018).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초기부적응도식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1), 305-321.
- 노영천, 유순화 (2012). 한국인용 낙관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상담학회상담학연구, 13(5), 2175-2202.
- 노현숙 (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지각이 갈등해결양식 및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시현 (2014). 지각된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대인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은혜, 정남운 (2014).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학생생활연구, 34, 385-405.
-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 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배미향, 조영아 (2014).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1849-1870.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승아, 구본용 (2018).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들의 내면아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6(1), 125-146.
- 백혜영, 신희천 (2008). 애정관계에서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1-14.
- 안하얀,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Young의 단절 및 거절도식에 따른 집단 분류와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43-969.
- 연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12). 신입생 실태조사.
- 유미영, 하정희 (2019). 여대생의 거절민감성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에서 단절 및 거절도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1), 47-66.
- 유성진, 권석만 (2008). 심리치료에서 도식과 양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91-117.
- 유아진, 서영석 (2017). 단절 및 거절 도식과 정서적 단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5), 41-60.
- 유현하 (2012). 아동의 낙관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질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영, 노영천 (2014). 초등학생의 낙관성과 정서인식 및 표현 부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3(3), 297-312.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이현정, 장희순 (2014). 청소년의 복합 및 다중 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 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39-59.
- 조은정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하나 (2003).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호/적대상황에서의 대인관계도식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하영, 권은정, 권지은, 황순택 (2010). 성격장애성향의 대인관계 문제: 저가-타인지각 비교. *인간이해*, 31(2), 211-230.
- 진효정 (2013). 아동의 낙관성과 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미영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나윤, 이영호 (2018). 아동기 외상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도식과 자기개념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2), 137-166.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기 청소년

- 기 대인간 외상 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한수경, 정남운 (2014). 대인간 외상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1), 149-168
- 한지숙 (2004). 피학대아동의 가정 복귀 후 심리 행동적 적응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황정미, 김민정 (2018). 고등학생의 지속성 기질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6), 275-300.
- Assad, K. K., Donnellan, M. B., & Conger, R. D. (2007). Optimism: An enduring resource for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93, 285-297.
- Baranoff, J., Oei, T. P., Cho, S. H., & Kwon, S. M. (2006). Factor structur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 (Short Form) in Korean and Australian samp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93, 133-140.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ostock, L., Sheikh, A. I., & Barton, S. (2009). Posttraumatic growth and optimism in health-related trauma: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6(4), 281-296.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02-111.
-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hip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3), 433-440.
- Crawford, E., & Wright, M. O.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n interpersonal schemas and subsequent experiences of relationship aggression. *Journal of Emotional Abuse*, 7, 93-116.
- Erickson, E. H. (1994).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Gibb, B., Alloy, L., Abramson, L., Rose, D., Whitehouse, W., Donovan, P., et al. (2001). History of childhood maltreatment, negative cognitive styles, and episodes of depression in adulthoo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4), 425-446.

- Hamamci, Z., & Esen-Coban, A. (2010).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of late adolescence in adjustment to universi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 300-304.
- Harris, A. E., & Curtin, L. (2002). Parental perception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3), 405-416.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85-892.
- Hu, L.,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hn, J. C., Mark, B., & Tracy, P. (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early maladaptive schemas, psychological mindedness and self-reported college adjustment.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1(1), 105-118.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 167-171.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rause, E., Mendelson, T., & Lynch, T.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 Abuse Neglect*, 27(2), 199-213.
- Luxenberg, T.,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2001). Complex trauma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Diagnosis, part one: Assessment. *Directions in Psychiatry*, 21, 373-392.
- Lumley, M. N., & Harkness, K. L. (2007). Specificity in the relations among childhood adversity,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symptom profiles in adolescent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1, 639-657.
- Martens, M.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3), 269-298.
- Meevissen, Y. M. C., Peters, M. L., & Alberts, H. J. E. M. (2011). Become more optimistic by imagining a best possible self: Effects of a two week intervention.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2(3), 371-378.
- Messman-Moore, T. L., & Coates, A. A.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75-92.
- Morgan, C., & Fisher, H. (2007). Environmental factors in schizophrenia: Childhood trauma-a critical review. *Schizophrenia Bulletin*, 33(1), 3-10.
- Nordahl, H. M., Holthe, H., & Haugum, J. A. (2005).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patients with or without personality disorder: Does schemas modification predict symptomatic

- relief?.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2), 142-149.
- Peterson, C. (2000). The future of optimism. *American Psychologist*, 55(1), 44-55.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ntos, O., Miguel, P., Teresa, F., T., & Teresa, R. (2012). Optimism in adolescence: Across-sectional study of the influence of family and peer group variables o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2(7), 812-817.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Shrout, P.,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ertus, I. L., Yehuda, R., Wong, C. M., Halligan, S., & Seremetis, S. V.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 Neglect*, 27, 1247-1258
- Srivastava, S., McGonagal, K. M., Richards, J. M., Butler, E. A., & Gross, J. J. (2006). Optimism in close relationships: How seeing things in a positive light makes them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43-153.
- Vaillant, G. E. (2003). A 60 year follow up of alcoholic men. *Addiction*, 98, 1043-1051
- Vollmann, M., Antoniw, K., Hartung, F., & Renner, B. (2011). Social support as mediator of the stress buffering effect of optimism: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ting the recipients' and providers'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5, 146-154.
- West, S., Finch, J., & Curran, P.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Wright, M. O. D., Crawford, E., & Del Castillo,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 59-68.
- Young, J. E. (1990, 1994).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1993). *The Schema diary*. New York: Cognitive Therapy center of New York.
- Young, J. E., Klosoko, J. S., & Weishaar, M. E. (2003). *심리도식치료* (권석만, 서수균 역.). 서울: 학지사.
- Young, J. E., Wattenmaker, D., & Wattenmaker, R. (1996). *Schema therapy flashcard*. New York: Cognitive therapy center of New York.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장숙경·김민정 /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향적 낙관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단절 및 거절 도식의 매개효과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원 고 접 수 일 : 2019. 05.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9. 10

게 재 결 정 일 : 2019. 10. 30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tic Experience and Dispositional Optim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Sook-Kyoung Jang

Minjeong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on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and dispositional optim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Participants were 592 college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who were surveyed on childhood trauma, dispositional optimism, interpersonal problems,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Based on existing research and theory, the investigators created two structural models. In one model childhood trauma and dispositional optimism indirectly affect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In the other model childhood trauma and dispositional optimism indirectly influenced interpersonal problems through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and through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hood trauma did not directly affect interpersonal problems, but affected them indirectly through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On the other hand, dispositional optimism directly affected interpersonal problems and also affected them indirectly through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Key words : Childhood trauma, dispositional optimism,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e, interpersonal problems, college students